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이재석(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이상명(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의 효과, 특히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의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등을 확인하는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대변하는 기업가 지향성은 주로 영향요인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새로운 요인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창업교육 수강 여부는 창업의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창업교육과 창업의지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기업가 지향성 및 환경적 요인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대, 한양대, KAIST의 이공계 대학(원)생 265명이 응답한 설문을 독립표본 T-test 및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았고,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 지향성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과 환경적 요인 중 기업가적 가정환경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혁신성과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반면,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가적 가정환경이 존재할 때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업의지, 기업가 지향성, 기업가적 가정환경, 자원접근성

1. 서론

최근 청년 실업 및 진로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대학들은 물론, 정부 및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창업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결과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등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Martin, McNally & Kay, 2013; von Graevenitz, Harhoff & Weber, 2010; Pittaway & Cope, 2007; Mentoor & Friedrich, 2007; Kierulff, 2005; Krueger & Brazeal, 1994; Garavan & O'Connell, 1994).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의

지의 관계에 대한 조절요인에 대해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경력지향성 등의 변수를 주로 확인하였을 뿐(Utsch & Rauch, 2000; Lorz, Volery & Muller, 2011; Bae, Qian, Miao & Fiet, 2014),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대변하는 기업가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조절요인으로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가적 가정환경 및 자원접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의 수강 여부가 창업의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창업교육과 창업의지는 긍정적인 관

* 이 논문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도 대학기업가센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지도 아래 제1저자의 2015년 한양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의 부분적 요건으로 제출된 미출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1저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jackielee@hanyang.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sanglee@hanyang.ac.kr

· 투고일: 2015-05-17

· 게재확정일: 2015-06-12

계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인 기업가적 가정환경 및 자원접근성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핵심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존재되어 있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의 결과에 대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의지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입증하고, 새로운 조절변수로 기업가 지향성 및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여 이들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 강화와 효과적인 창업교육과정 마련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 관련 지식 및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에는 잠재적 창업가들까지 포함되며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어떻게 학습되게 하고 창업을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창업가는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onstadt, 1985; Garavan & O'Kinneide, 1994; Gibb, 2002).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Timmons(1994)를 시작으로 창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창업교육은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여주고(McGrath, 1999), 불확실성으로 인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창업교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Kirzner, 1997). 그리고 제대로 된 창업교육은 성공적인 창업 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학의 창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Lee & Chang, 2004),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려는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ho, 1998),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업 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도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고(Park & Kang, 2010),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Han & Lee, 1998). 하지만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이 더 많은 또는 더 좋은 기업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증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연구들은 창업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높고, 창업교육 참가와 벤처 창업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창업교

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업교육과 창업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창업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대체시키도록 교육함으로써 창업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함으로써 실업을 탈피하고 창업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Garavan & O'Kinneide, 1994; Kierulff, 2005; Cheon & Jung, 2009; Michaelides & Benus, 2012; Lee, 2013). 그러나 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주장한 연구들도 있어서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인적 자본 및 창업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창업교육과 창업과의 관계는 혼란중심의 창업교육보다는 일반적인 학교교육 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강한 효과가 있고(Martin, McNally & Kay, 2013), 창업교육은 많은 창업관련 인적 자본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Mentoor & Friedrich, 2007), 창업교육과 창업에 대한 기술 및 태도, 또는 창업의지는 작지만 부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von Graevenitz et al., 2010; Garalis & Strazdiene, 2007; Fayolle et al., 2006). 이처럼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창업교육의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고, 정성적인 연구들에서도 모호한 결과들을 보이며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고용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이며(Bird, 1988),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창업가가 되려는 개인의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Crant, 1996;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Bae, Qian, Miao & Fiet, 2014; Yoon, 2004).

창업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창업의지의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문헌(Bird, 1988; Katz & Gartner, 1988; Krueger & Brazeal, 1994)과 실증연구(Brenner, Pringle & Greenhouse, 1991; Krueger, 1993a, 1993b; Scott & Twomey, 1988)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Bird(1988)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작된 창업의지 연구는 Shapero(1975), Shapero & Sokol(1982) 등이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모델을 정립하였고, Krueger(1993)와 Davidsson(1995)이 기존의 의지모델 및 창업의지모델을 정리하고 확장하여 또 다른 창업의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utio, Keeley, Klofsten & Ulfstedt(1997)는 기존 연구모델들을 대학이라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의지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지모델이 제시한 의지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과 Shapero의 창업 이벤트 모델(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 SEE)이 그 실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특정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기준이 더 호의적일수록,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가 더 클수록 하려고 하는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으로(Ajzen, 1991; Ajzen et al., 2001), 인간의 행동은 계획된 것으로 인지적 과정이며,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지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Ajzen, 1991;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이와 달리 SEE는 관성(Inertia)을 대신할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 관성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창업의지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인 인지된 매력(Perceived Desirability),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천성향인 행동성향(P propensity to act)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았다(Shapero & Sokol, 1982). 실직, 이민 등 주요 이벤트가 사람들에게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은 또 다른 대안으로 창업을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Park & Kang, 2007). 이 두 모형은 창업의지에 대한 상대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Krueger, 1993;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인간의 의지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현재까지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이 의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과 성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성취욕구, 모호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for Ambiguity), 혁신성(Innovativeness), 자율성, 개인적 통제 욕구 등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Brockhaus & Horwits, 1986; Krueger & Carsrud, 1993; Thomas & Mueller, 2000; Gurol & Atsan, 2006; Gurel, Altinay & Daniele, 2010; Lee, 2000; Yoon, 2004), 개인적 속성은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Nga & Shamuganathan, 2010). 하지만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이 왜, 어떻게 창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창업 이후 그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여 사후 합리화 경향이 강해 창업 발생 전 개인적 특성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Gartner, 1989). 또한 많은 연구가 수행된 통제위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도 창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 성향으로 창업 동기와 의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Robinson, Stimpson, Huefner & Huntet, 1991).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 특성과 창업행동 간의 강한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기대, 상황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행동을 하는 개인의 의지는 개인적 특성 및 속성뿐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창업행동의 촉매제 역할 및 동기 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Mueller & Thomas, 2001; Haase & Lautenschlager, 2011).

2.3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존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기업가적 성향이나 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등 내생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 환경, 창업에 대한 인식 등의 외생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또한 많은 연구들의 배경에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 태도 및 기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고, 창업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받고 있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며 그 결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Lorz, Volery, & Muller, 2011). 또한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된 창업교육의 효과를 극찬하고 있지만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실증되지 않고 있다(Krueger & Brazeal, 1994; Gorman, Hanlon & King, 1997; Peterman & Kennedy, 2003; Walter, Parboteeach, & Walt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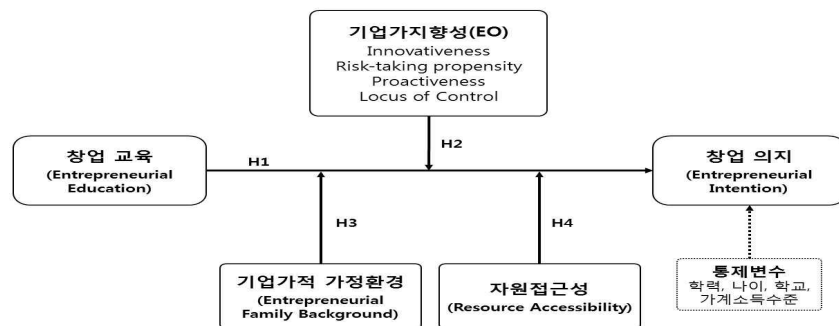
Yoon(2012)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Chang(2000)은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창업의지를 가지는 것을 볼 때 창업교육이 졸업 후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Garavan & O'Connell(1994)은 창업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높고 창업교육 참가와 벤처 창업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Galloway & Brown(2002)은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학 수준의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창업의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Kolvereid & Moen(1997)도 창업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업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더 강력한 창업의지와 열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Clark, Davis & Hamish(1984) 및 Kuttim, Kallaste, Venesaar & Kiis(2014)도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한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이외에도 최근 연구로 Bae, Qian, Miao & Fiet(2014)는 73개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의 연구에 대하여 메타분

석을 실시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의지는 비록 작지만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상관관계가 일반 경영학교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Karlan & Valdivia, 2011). Park, An & Yoon(2011)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였고, Oosterbeek, Praag & Ijsselstein(2010)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받기 전후의 창업의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기술에 대해서 유의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창업교육을 받은 이후 창업의지가 더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메타분석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량적 및 정성적 연

구들을 실시하였으나 이 연구들도 여전히 기존의 모호한 결과를 풀지 못하고 있다(Pittaway & Cope, 2007; Mwasalwiba, 2010; Martin, McNally, & Kay, 2013).

2.4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들 관계에 대한 여러 조절요인에 대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지향성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반된 결론을 보이고 있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창업교육은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창업가가 되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기업가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창업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연구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창업교육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며 역할모델을 관찰하기 위한 기회 등 사회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의 학습경험에 알맞은 직업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Kram, 1983; Shapero & Sokol, 1982). Peterman & Kennedy(2003)는 청소년들의 창업교육 참여는 창업 욕구에 대한 인식과 창업 적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증가시켜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Kuttimm, Kallaste, Venesaar & Kiis(2014)는 창업교육의 참여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으며, Bac, Qian, Miao & Fiet(2014)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가 작지만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은 일반 경영학교육보다 창업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창업의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교육 수강 여부는 창업의지의 차이를 가져오며,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예상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절변수들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및 통제위치라는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가적 가정환경 및 자원접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주요 특성이다.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고 ‘기업가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Gartner(1990)는 창업가 개인의 성격특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높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통제위치,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을 창업가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사람들의 창업의지에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Nga & Shamuganathan, 2010),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및 모호성에 대한 인내가 높고,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더 기업가적이며 창업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

Mueller, 2000; Utsch & Rauch, 2000). 혁신성은 창조적 과정을 양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성향으로 Ahmed et al.(2010), Altinay et al.(2012)은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여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Gurol & Atsan, 2006; Gurel, Altinay & Daniele, 2010; Koh, 1996; Mueller & Thomas, 2001)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혁신성이 창업에 있어서 주요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고, Utsch & Rauch(2000)는 혁신성과 계획은 성취동기와 기업가적 성공사이를 조절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성향으로 위험에 대해 덜 회피적인 사람들이 창업할 가능성이 더 크다(Knight, 1921; Rees & Shah, 1986). Ang & Hong(2000)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더 높은 위험감수성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Gurel, Altinay & Daniele(2010)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여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으로 확인하였다. 진취성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자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먼저 예견하여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Lumpkin & Dess, 1996). 진취성은 특히 직업선택 및 창업에 대해서 시사점을 가지며(Bateman & Crant, 1993), 주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진취성의 특징 때문에 진취성이 높은 사람이 높은 창업의지를 보유한다고 한다(Crant, 1996). 마지막으로 통제위치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내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 노력 등을 통해 행동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외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보다 강한 창업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rockhaus & Horwitz, 1986; Verheul et al., 2012; Lee, 2000).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의 기업가 지향성에 따라 두 변인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것은 기업가 지향성이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1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2-2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감수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2-3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진취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2-4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위치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기업가적 가정환경(Entrepreneurial Family Background)과 자원접근성(Resource Acces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업가적 가정환경은 부모 또는 가족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환경으로 가족 중에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가

또는 기업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부모의 창업과 자녀의 창업 가능성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의 직업 의지 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력은 중요하며(Jodl et al., 2001), 특히 부모의 창업은 자녀들의 창업의지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apiro & Sokol, 1982; Scherer et al., 1989; Crant, 1996; Matthews & Moser, 1996; Schmitt-Rodermund, 2004; Wang & Wong, 2004; Yoon, 2004). 또한 창업한 가족도 역할모델 등을 통해 자녀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Ronstadt, 1985; Scott & Twomey, 1988; Hout & Rosen, 2000; Veciana, Aponte & Urbano, 2005; Laspita et al., 2012), 가족의 사업경험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중요한 예측치중 하나로 가족이 사업경험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아서 기업가적 가정환경의 존재는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Ahmed et al., 2010; Kuttim et al., 2014). 따라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적 가정환경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적 가정환경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접근성은 창업에 필요한 주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사회적 지원세력, 즉 개인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존재 등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창업자가 정서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세력의 존재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Gnyawali & Fogel, 1994; Carsrud, Gaglio & Olim, 1987). 또한 사회적 지원세력은 시장, 기회 등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적 및 재무적 자원, 사회적 지원, 문제해결 등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여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Hoang & Antoncic, 2003; Nicolaou & Birley, 2003a, 2003b; Walter, Auer & Ritter, 2006; Prodan & Dmrovsek, 2010),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상담,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획득, 자금 확보 등 여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Manning, Bieley & Norburn, 1989). 창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 및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문과 경영 등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을 지원하는 자원접근성의 정도는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접근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실시되어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개 대학교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총 1,760부를 배포하여 1,29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73.6%), 결측치 등 433부를 제외한 총 862부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인 서울대(70부), 한양대(120부) 및 KAIST(75부)의 26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대학생 160명(60.4%), 석사 77명(29.1%), 박사 28명(10.5%)으로, 나이는 25세 이하(150명, 56.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30세 이하 34.0%, 31세 이상 9.4%).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133명(50.2%)으로 창업교육 수강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가족 중 기업가가 있는 학생들이 131명(49.4%), 가계소득 수준은 연5천만원~연1억원 이하인 학생들이 122명(46.0%)으로 확인되었다.

3.2 변수의 측정 및 자료 처리

창업의지는 Krueger & Brazeal(1994), Linan, Santos & Fernandez(2011) 등이 창업의지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3년 이내 창업 가능성을 활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오로 이분화한 3년 이내 창업여부를 학생 때 창업, 졸업 후 바로 창업, 취업 후 5년 이내 창업, 취업 후 5~10년 이내 창업, 10년 이상 경력 후 창업, 그리고 절대 창업하지 않는다고 세분화하여 가장 강한 창업의지인 학생 때 창업부터 창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창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창업교육은 창업교육 참가와 벤처창업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Garavan & O'Cinneide(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의 이분화된 척도로 파악하였다. 기업이 지향성은 Sexton & Bowman(1986), Miller(1983), Covin & Slevin(1990), Koh(1996), Lumpkin & Dess(1996), Herman et al.(2010) 등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해 각각 3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정교화를 위해 일부 문항은 역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를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제시된 요인변수들을 각 항목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가적 가정환경은 Ahmed et al.(2010), Veciana, Aponte & Urbano(2005)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4촌 이내의 가족 중에서 사업가가 있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라는 이분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자원접근성은 Carsrud, Gaglio & Olim(1987), Gnyawali & Fogel(1994)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팀 구성, 자금 조달, 새로운 사업 구상, 창업지원정책 및 지원기관 활용, 자문단 구성 등 총 6개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후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 학력, 학교 및 가계소득수준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학력은 학부/대학원, 나이는 25세 이하/30세 이하/31세 이상, 학교는 한양대/서울대/KAIST, 그리고 가계소득수준은 연5천만원 이하/연1억원 이하/연1억원 초과 등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3.3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설문의 모든 문항을 설문의 응답자인 학생들이 동시에 자기보고 방식으로 답했기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의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회전하지 않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Podsakoff & Organ, 1986) 단일요인을 검증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확인되어 지배적인 일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28.09%로 확인되어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측정자료는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를 왜곡할만한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4 주요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은 고유값 1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고,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낮추는 항목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하여 Cronbach's Alpha가 적절한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표 1>과 같이 각 변수들의 신뢰도는 0.5이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0.5~0.6정도면 충분하다는 Van de Ven & Ferry(1980)의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혁신성	1)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0.898	0.834
	2) 창의적 활동 조연	0.888	
	3)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 선호	0.813	
위험 감수성	3) 고위험에도 고수익성 기회 추구	0.844	0.536
	1) 불충분한 정보에도 과감한 의사결정 수행	0.683	
	2) 안정적 직업 선호(Reverse)	0.633	
진취성	2)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적극적 학습	0.904	0.821
	1) 관심분야 선도적 위치 확보 노력	0.839	
	3)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0.835	
통제 위치	2) 원하는 것의 획득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0.841	0.583
	1) 내 인생은 나의 행동에 의해 결정	0.841	
자원 접근성	6) 자문단 구성	0.777	0.816
	5) 창업지원정책 인지	0.753	
	4) 창업지원기관 활용	0.752	
	2) 초기 자금 조달	0.692	
	1) 창업팀 구성	0.685	
	3)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활용 사업 구상	0.666	

IV. 분석결과

4.1 상관관계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표 2>와 같이 Pearson 상관관계수로 파악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 0.05 및 0.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절변수들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진단하는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고려하였다.

<표 2> 상관관계분석

	평균	표준 편차	창업 의지	창업교육 (수강)	학력 (대학원)	나이 (30세이하)	나이 (31세이상)	연소득 (1억이하)	연소득 (1억초과)	학교 (서울대)	학교 (KAIST)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통제 위치	자원 접근성	가정환경 (존재)
창업의지	2.842	1.313	1														
창업교육 (수강)	0.502	0.501	.559***	1													
학력 (대학원)	0.936	0.490	-.073	-.042	1												
나이 (30세이하)	0.339	0.474	-.017	-.051	.299***	1											
나이 (31세이상)	0.094	0.293	.069	.115*	.398***	-.231***	1										
연소득 (1억이하)	0.473	0.500	.129**	.194***	-.043	-.077	.162***	1									
연소득 (1억초과)	0.112	0.316	.117*	.015	-.040	.009	-.117*	-.337***	1								
학교 (서울대)	0.264	0.442	-.143**	-.293***	-.275***	-.159***	-.193***	-.056	-.046	1							
학교 (KAIST)	0.283	0.451	.351***	.492***	.022	-.221***	.227***	.086	.114*	-.376***	1						
혁신성	3.225	0.873	.419***	.200***	.034	-.022	.124**	.063	.113*	-.132**	.193***	1					
위험 감수성	2.928	0.705	.370***	.147**	-.111*	.008	-.041	.041	.189***	.002	.088	.362***	1				
진취성	3.837	0.713	.432***	.282***	.132**	-.047	.135**	.025	.022	-.142**	.256***	.525***	.296***	1			
통제위치	4.015	0.681	.082	-.066	.101	.058	.070	-.025	.068	-.128**	.019	.153**	.133**	.253***	1		
자원 접근성	2.749	0.705	.440***	.337***	.082	.030	.131**	.114*	.144**	-.046	.247***	.453***	.288***	.403***	.143**	1	
가정환경 (존재)	0.494	0.501	.148**	.094	.017	-.088	.017	.038	.089	-.147**	.049	.098	.009	.051	.110*	.110*	1

주) 양측검정, * p<.10, ** <.05, *** <.01. 창업교육, 학력, 나이, 연소득, 학교, 역할모델은 더미변수.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서 한글 SPSS ver. 18.0을 활용하였다. 우선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창업의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가정에 해당(F=3.237, p=0.073)되는 결과값을 확인하였으며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창업의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0.932, p=0.000). <표 3>에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창업의지는 3.57로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 창업의지 2.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서 창업의지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Bae, Qian, Miao & Fiet(2014)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창업교육 수강 여부와 창업의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미수강	수강	미수강	수강		
창업의지	2.11	3.57	1.093	1.089	10.932	.000***

주) *** p<.01

<표 4>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형 1(R²=.146)보다 창업교육이라는 독립변수가 추가된 모형 2의 설명력(R²)이 33.1%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창업교육 수강 여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쳐(B=1.312, P<.01) 창업교육을 수강하면 창업의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의 설명력은 53.1%로 모형 1(33.1%)과 모형 2(48.4%)보다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p<.01) 기업가 지향성, 기업가적 가정환경 및 자원접근성의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 지향성 중에서 혁신성(B=.450, p<.01), 위험감수성(B=-.247,

$p < .10$), 진취성($B = .275$, $p < .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통제위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환경적 요인인 기업 가격 가정환경($B = -.433$, $p < .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자원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기업이 지향성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1과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제시한 위험감수성과 환경적 요인 중에서 기업가격 가정환경은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으로 확인되어 가설 2-2와 가설 3은 기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통제위치와 자원접근성에 대한 가설 2-4와 가설 4도 기각되었다.

<표 4>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모형 1				모형 2			
	B	Beta	t	VIF	B	Beta	t	VIF
(상수)	2.377		12.970***		1.923		11.213***	
학력(대학원)	-.348	-.131	-1.813*	1.531	-.182	-.069	-1.062	1.552
나이(30세이하)	.257	.093	1.335	1.424	.142	.052	.831	1.433
나이(31세이상)	.297	.067	.934	1.530	.213	.048	.753	1.532
연소득(1억이하)	.356	.137	2.154**	1.179	.162	.062	1.090	1.209
연소득(1억초과)	.533	.129	2.046**	1.170	.514	.125	2.225**	1.170
학교(서울대)	-.038	-.013	-.191	1.326	.147	.050	.828	1.347
학교(KAIST)	.897	.306	4.519***	1.345	.262	.090	1.367	1.600
창업교육					1.312	.504	8.288***	1.376
F	6.123***				15.395***			
R ² (Adj. R ²)	.146 (.122)				.331 (.309)			
R ² 변화량	.146				.185***			

주) * $p < .10$, ** $p < .05$, *** $p < .01$

<표 5> 조절효과분석

모형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t	VIF	B	Beta	t	VIF	B	Beta	t	VIF
(상수)	1.923		11.213***		2.099		11.846***		1.973		10.773***	
학력(대학원)	-.182	-.069	-1.062	1.552	-.235	-.088	-1.509	1.615	-.175	-.066	-1.160	1.634
나이(30세이하)	.142	.052	.831	1.433	.159	.058	1.024	1.496	.077	.028	.499	1.563
나이(31세이상)	.213	.048	.753	1.532	.121	.028	.480	1.558	.068	.015	.275	1.577
연소득(1억이하)	.162	.062	1.090	1.209	.071	.027	.531	1.240	.058	.022	.445	1.250
연소득(1억초과)	.514	.125	2.225**	1.170	.175	.042	.817	1.267	.261	.063	1.251	1.291
학교(서울대)	.147	.050	.828	1.347	.139	.047	.850	1.447	.057	.019	.349	1.529
학교(KAIST)	.262	.090	1.367	1.600	.158	.054	.914	1.645	.059	.020	.347	1.678
창업교육(A)	1.312	.504	8.288***	1.376	1.021	.392	6.814***	1.561	1.289	.495	6.754***	2.719
혁신성(B)					.162	.124	2.106**	1.624	-.102	-.078	-.979	3.220
위험감수성(C)					.218	.168	3.238***	1.265	.354	.272	3.948***	2.402
진취성(D)					.200	.153	2.587**	1.646	.055	.042	.526	3.224
통제위치(E)					.001	.001	.019	1.148	.017	.013	.194	2.296
자원접근성(F)					.146	.112	1.939*	1.575	.155	.119	1.554	2.977
가정환경(존재)(G)					.224	.086	1.800*	1.076	.431	.166	2.521**	2.182
A×B									.450	.256	2.946***	3.826
A×C									-.247	-.132	-1.918*	2.398
A×D									.275	.147	1.823*	3.283
A×E									-.054	-.029	-.436	2.253
A×F									-.039	-.021	-.265	3.235
A×G									-.433	-.147	-1.813*	3.329
F	15.395***				16.295***				13.398***			
R ² (Adj. R ²)	.331 (.309)				.484 (.455)				.531 (.491)			
R ² 변화량	.331				.153***				.046***			

주) * $p < .1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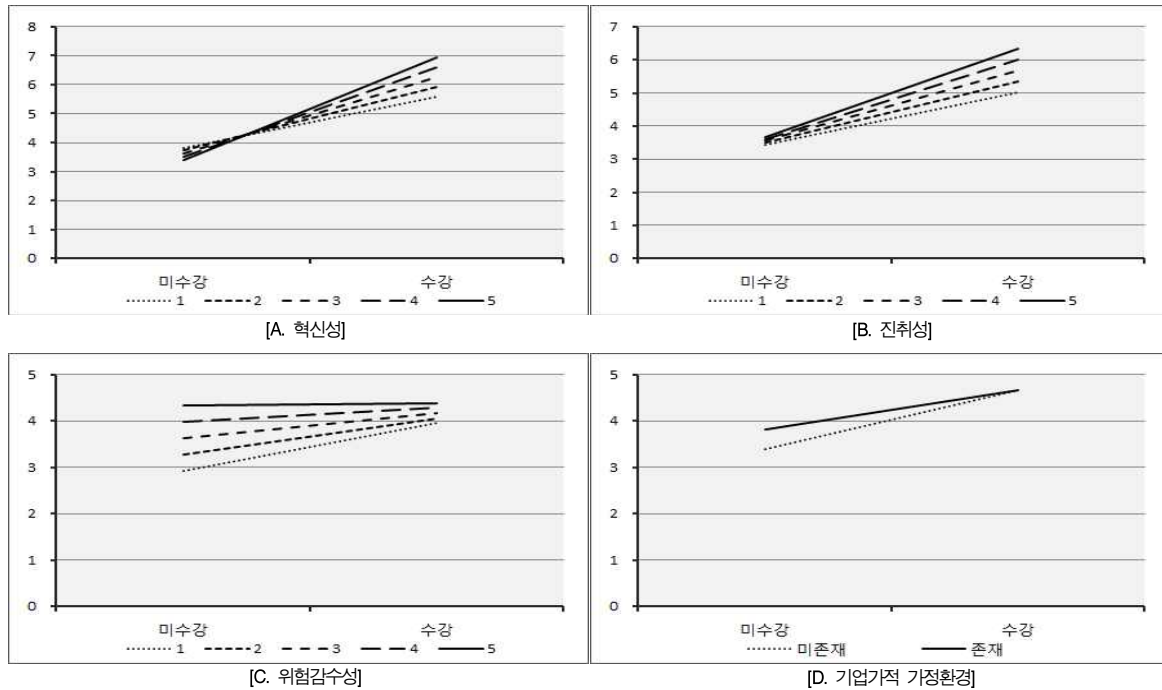
<그림 2>는 유의미하게 도출된 조절변수들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창업교육 수강 여부와 조절변수들의 값들에서 제시된

회귀선을 확인해 보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기울기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와 <그림 B>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이 증가할수록 회귀선의 기울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혁신성

과 진취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위험감수성과 기업가적 가정환경은 창업교육 수강 여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적

(buffering)인 조절효과로 작용하여 <그림 C>와 <그림 D>에 나타난 것처럼 위험감수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기업가적 가정환경이 존재할 때 회귀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단순기울기분석

V.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는지, 창업교육 수강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실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의 창업의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창업교육 수강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은 조절효과를 발생하여 혁신성과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를 높이지만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를 부정적으로 조절하였으며, 기업가적 가정환경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교육과 창업의지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던(Honig, 2004)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창업의지는 차이가 있으며, 창업교육 수강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한 연구들(Timmons, 1994; Gorman, Hanlon & King, 1997; Pittaway & Cope, 2007) 및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한 연구들(Bae, Qian, Miao & Fiet, 2014; Galloway & Brown, 2002; Kolvereid & Moen, 1997; Clark et al., 1984)에게 실증을 통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절변수를 도입하여 실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조절변수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네트워크, 문화적 요인 등을 조절변수로 주로 사용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조절요인이 아니라 주로 영향요인으로 다루었던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가적 가정환경 및 자원접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조절요인으로 도입하여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조절요인들 외에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새로운 조절요인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조절요인에 대한 확인 및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Bae, Qian, Miao & Fiet(2014)의 연구를 한번더 확장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이 제시한 조절요인의 효과에 대해서 실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업의지 향상을 위해서 창업교육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창업의지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창업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창업의지 향상은 물론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기업가 지향성 및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 지향성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위험감수성은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을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회피하려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가적 가정환경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볼 때, 창업교육보다는 창업을 한 가족들로부터의 학습 및 간접경험을 더 유익하게 인식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가적 가정환경이 창업에 필요한 주요 자원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가정환경을 통해 가치 있는 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하려는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Zellweger et al.(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 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 받을 학생들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이론 및 실무적으로 유익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더욱 향상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앞서 제시한 새로운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시점에서 창업교육의 수강 여부와 창업의지를 측정하고 확인하였다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시점에서의 측정이 아닌 창업교육의 수강 전후 또는 창업교육과정 중 정기적인 창업의지의 변화 등으로 측정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의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의 측정 이후 실제로 학생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제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 창업의지의 실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창업의

지의 확인뿐 아니라 실제 창업으로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창업교육-창업의지-창업으로 연결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의 이공계 전공의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학력, 전공, 학교, 지역, 국가 등 집단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밀한 설문항목 개발과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 학교, 지역, 국가 등의 비교 연구,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결과가 다양한 집단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지 일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측정된 변수 중에서 기업가적 가정환경은 가족 중 창업가의 존재 유무만을 측정하였을 뿐 창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고려하지 않아서 창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이나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창업이나, 또는 기술창업이나에 따라 창업에 대한 선호와 인식의 정도가 다르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환경에서 느끼는 창업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파악한 기업가 지향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조절요인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확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절요인들 외에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새로운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교육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과목, 내용, 체계 등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이나 교육자의 열정, 역량 등과 같은 교육자의 특성 등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조절요인에 대한 파악과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Ahmed, I., Nawaz, M. M., Ahmad, Z., Shaukat, M. Z., Usman, A., Wasim ul, R. & Ahmed, N.(2010). Determinants of students'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Evidence from business graduat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5(2), 14-2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 Altinay, L., Madanoglu, M., Daniele, R. & Lashley, C.(2012). The influence of family tradition and psychological trai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1(2), 489-499.
- Ang, S. H. & Hong, D. G. P.(2000). Entrepreneurial spirit among East Asian Chinese,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42(3), 285-309.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 Ulfbstedt, T.(1997).

-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I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7, Babson College/Kauffma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Babson College. Available at <http://www.babson.edu/entrep/fer/papers97/autio/aut1.htm>.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Parker, G. G. C. & Hay, M.(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8(2), 217-254.
- Bateman, T. S. & Crant, J. M.(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renner, O. C., Pringle, C. D. & Greenhaus, J. H.(1991). Perceived Fulfillment of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Entrepreneurship: Work Values and Career Intentions of Business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9(3), 62-74.
- Brockhaus H. & Horwitz, P. S.(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and R. W.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25-48.
- Carsrud, A. L., Gaglio, C. M. & Olm, K. W.(1987). Entrepreneurs-Mentors, Networks, and Successful New Venture Development: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2), 13-18.
- Chang, D. S.(2000). Impact of Venture Creation Management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of Business and Engineering Students in Korea, *Juornal of Industrial Studies*, 8(1), 129-139.
- Cheon, S. K. & Jung, H. Y.(2009). The Effects of BizCool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Understanding of Enterprise Commencement and BizCool Outco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4(4), 89-114.
- Cho, B. J.(1998).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of Korean Startups and Implications for Opportunity Search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0(1), 245-266.
- Clark, B. W., C. H. Davis & V. C. Harnish(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 26-31.
- Covin, J. G. & Slevin, D. P.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Nov. 23-24.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a).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Galloway, L. & Brown, W.(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a driver in the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 *Education+Training*, 44(8/9), 398-405.
- Garalis, A. & Strazdiene, G.(2007). Entrepreneurial skills development via simulation business enterprise, *Social Research/Socialiniai tyrimai*, 2(10), 39-48.
- Garavan T. N. & O'Co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4(1), 27-37.
- Gartner, W. B.(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5-28.
- Gibb,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4), 43-62.
- Gorman, G., Hanlon, D. & King, W.(1997). Some research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erpris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management: a ten-year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5(3), 56-77.
- Gurel, E., Altinay, L. & Daniele, R.(2010). Tourism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646-669.
- Gurol, Y. & Atsan, N.(2006).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mongst university students: some insight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in Turkey, *Education+Training*, 48(1), 25-38.
- Haase, H. & Lautenschlager, A.(2011). The 'Teachability Dilemma'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45-162.
- Han, J. H. & Lee, M. J.(1998). The Tru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s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 *Korea Business Review*, 2(2), 5-26.
- Herman, J. L., Stevens, M. J., Bird, A., Mendenhall, M. & Oddou, G.(2010). The Tolerance for Ambiguity Scale: Towards a more refined measure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1), 58-65.
- Hoang, H. & Antoncic, B.(2003). Network-based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165-187.
- Honig, B.(2004).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ward a Model of Contingency-Based Business Planning,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3), 258-273.
- Hout, M. & Rosen, H.(2000). Self-employment, family background, and ra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 35(4), 670-692.
- Jodl, K. M., Michael, A., Malanchuk, O., Eccles, J. S. & Sameroff, A.(2001). Parents' roles in shaping early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Child Development*, 72(4), 1247-1265.
- Karlan, D. & Valdivia, M.(2011). Teaching entrepreneurship: Impact of business training on microfinance clients and institu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2), 510-527.
- Katz, J. A. & Gartner, W.(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erulff, H. E.(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oland: Findings from the fiel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15(1), 93-98.
-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Knight, F.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oughton Mifflin.
- Koh, H. C.(1996).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 Study of Hong Kong MBA Student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12-25.
- Kolvreid, L. & Moen, O.(1997).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1(4), 154-160.
-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Krueger, N. F.(1993a). Growing Up Entrepreneurial?: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52, 80-84.
- Krueger, N. F.(1993b).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uttim, M., Kallaste, M., Venesaar, U. & Kiis, A.(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0(0), 658-668.
- Laspita, S., Breugst, N., Heblich, S. & Patzelt, H.(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4), 414-435.
- Lee, J. H.(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 Lee, S. M. & Chang, D. S.(2004). A Comparative Study on Venture Creation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Korea Business Review*, 7(1), 7-25.
- Linan, F., Santos, F. J. & Fernandez, J.(2011).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n potential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3), 373-390.
- Lorz, M., Volery, T. & Muller, C. A.(2011).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 Gallen.
- Lumpkin, G. T. & Dess, D.(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nning, K., Birley, S. & Norburn, D.(1989).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4(1), 68-76.
- Martin, B. C., McNally, J. J. & Kay, M. J.(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2), 211-224.
- Matthews, C. H. & Moser, S. B.(1996).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gender on interest in small firm owne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2), 29-43.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entoor, E. & Friedrich, C.(2007). Is entrepreneurial education at South African universities successful? An empirical example,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1(3), 231-232.
- Michaelides, M. & Benus, J.(2012). Are self-employment training programs effective? Evidence from Project GATE, *Labour Economics*, 19(5), 695-705.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ueller, S. L. & Thomas, A. S.(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 51-55.
- Mwasalwiba, E. S.(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Training*, 52(1), 20-47.
- Nga, H. K. J. & Shamuganathan, G.(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demographic factors on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 up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2), 259-260.
- Nicolaou, N. & Birley, S.(2003a). Academic networks in a trichotomous categorisation of university spinou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33-359.
- Nicolaou, N. & Birley, S.(2003b). Social Networks in Organizational Emergence: The University Spinout Phenomenon, *Management Science*, 49(12), 1702-1725.
-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elstein, A.(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454.
- Park, C. & Kang, Y. R.(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J. W., An, S. K. & Yoon, I. C.(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Park, S. S. & Kang, S. I.(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s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Peterman, N. E. & Kennedy, J. K.(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8(2), 129-144.
- Pittaway, L. & J. Cope(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5), 479-510.
- Podsakoff, P. M. & Organ, D. W. (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Prodan, I. & Drnovsek, M.(2010). Conceptualizing academic-entrepreneurial intentions: An empirical test, *Technovation*, 30(5-6), 332-347.
- Rees, H. & Shah, A.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1), 95-108.
- Robinson, P.,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5(4), 13-31.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3(3), 53-81.
- Schmitt-Rodermund, E.(2004). Pathways to successful entrepreneurship: parenting, personality, early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3), 498-518.
- Scott, M. G. & Twomey, D. F.(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37-44.
- Sexton, D. L., & Bowman, N. B. (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pp.513-528). Wellesley: Babson College.
- Shape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apero, A. &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 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homas, A. S. & Mueller, S. L.(2000). A case for comparative entrepreneurship: assessing the relevance of 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1(2), 287-301.
-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Irwin/McGraw-Hill.
- Utsch, A. & Rauch, A.(2000). Innovativeness and initiative as mediators between achievement orientation and venture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1), 45-62.
- Van de Ven, A. & Ferry, D. L.(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Verheul, I., Thurik, R., Grilo, I. & van der Zwan, P.(2012). Explaining preferences and actual involvement in self-employment: Gender and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325-341.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on Graevenitz, G., Harhoff, D. N. & Weber, 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Walter, A., Auer, M. & Ritter, T.(2006). The impact of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university spin-off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41-567.
- Walter, S. G., Parboteeah, K. P., & Walter, A. (2013). University Departments and Self-Employment Intentions of Business Students: A Cross-Level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7(2), 175-200.
- Wang, C. K. & Wong, P.(2004). Entrepreneurial interest of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Technovation*, 24(2), 163-172.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6.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Zellweger, T., Sieger, P. & Halter, F.(2011).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Career Choice Intentions of Students with Family Business Backgroun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5), 521-536.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Lee, Jae-Seok*
Lee, Sang-Myung**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univers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s potential entrepreneur and new moderating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We suggested EO(innovativeness, risk-taking propensity, proactiveness and locus of control) and environmental factors(entrepreneurial family background and resource accessibility) as new moderating factors in the relationship.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 First,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enrolled and unenrolled students in entrepreneurial education? Second, does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s positively? Finally, do EO and environmental factors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order to test our research model, the current study collected data from 265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natural sciences or engineering in Seoul National Univ., Hanyang Univ., and KAIST. To investigate our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independent-sampl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entrepreneurial education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ed by EO and environmental factors. First, the resul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tween enrolled and unenrolled students in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udents who enrolled entrepreneurial education was higher than others. Second,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e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positively.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innovativeness, risk-taking propensity, proa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family background among investigated six moderators were significant. entrepreneurial education-entrepreneurial intentions relationship was even stronger under high innovativeness and high proactiveness. But risk-taking propensity and entrepreneurial family background decreas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Key word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Family Background, Resource Accessibility

* First Author, Ph.D.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jackielee@ha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sanglee@hanyang.ac.kr